

Venture | 승승장구!! 벤처 소식

Focus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Venture Focus

신지소프트, 오픈마켓통합관리 셀게이트웨이 시장진입 본격가동

무선 인터넷 및 웹 솔루션개발전문업체인 신지소프트대표 이승훈(www.sinjsft.com)가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위한 통합관리솔루션인 셀게이트웨이 (www.sellgate.co.kr)의 시장진입을 본격가동하기 위해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의 카페 및 제휴사들과의 연동을 통해 무료사용이벤트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지소프트에서는 오픈마켓 창업준비자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창업준비 및 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무료로 실시하는 물론 창업 아이템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고객사들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협찬 받아 모든 교육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셀게이트웨이> 홈페이지(www.sellgat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글과컴퓨터, 어린이들의 문화재 체험 도우미로 나서

한글과컴퓨터(대표 김수진 www.haansoft.com)는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우리 문화재 체험을 돕는 문화유산체험학교를 8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했다.

경기 여주지역 초등학생들과 한컴의 임직원 자녀 등 총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아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면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기간 동안 세종대왕릉과 국립 고궁박물관 경복궁 등 주요 문화유산들을 방문하여 세종시대의 과학기구인 앙부일구(해시계)와 혼천의를 모형으로 만들어 보고, 나만의 한글티셔츠 만들기, 훈민정음 인쇄체험 등 문화재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장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한컴의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이 행사 도우미로 동참해, 참여학생들과 교류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다날, 선불형 휴대폰 결제 개발로 서비스 다각화 나서

다날(대표 박성찬 www.danal.co.kr)은 온라인 콘텐츠 구입 고객에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사이버머니(주)대표 이만찬과 손잡고 선불형 휴대폰 결제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에 단문 메시지로 전송된 바코드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하면 기존 휴대폰 결제와 같이 온라인 콘텐츠 구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휴대폰 결제가 제품이나 콘텐츠를 구입한 뒤 금액이 청구되는 '후불제'였다면 이 서비스는 자신이 충전한 금액만큼만 사용하는 '선불제'다.

다날은 "결제수단 다양화를 통한 고객 편의 제공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하였다"며 "향후 시장 점유율 및 매출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아카데미, 게임 취업 희망자를 위한 교육 무료특강 실시

미래게임인재양성 교육기관 네오위즈게임아카데미(대표 길돈섭 오창훈www.neowizacademy.com)는네오위즈게임사와공동으로게임 업계에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무료 특강을 개최했다.

‘온라인게임 개발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펼쳐진 이번 특강은 게임회사 취업에 대한 다양한 실전 정보와 취업비법과 준비과정을 강요했으며 게임회사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특강은 실제 온라인 게임 개발이 이루어지는 전과정과 각 과정별 업무 프로세스 소개, 게임 개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준비과정 등 다양한 실전 정보와 파파온라인 사업팀장에게 듣는 생생한 퍼블리싱 프로세스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한편, 네오위즈 게임아카데미는 대한민국 게임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방학특강, 아카데미자 대상 교육, 해외취업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보다 폭넓은 게임 개발 인력의 확보를 위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모집, 운영하고 있다.



뉴로테크, 中 제약사와 6억 규모 기술개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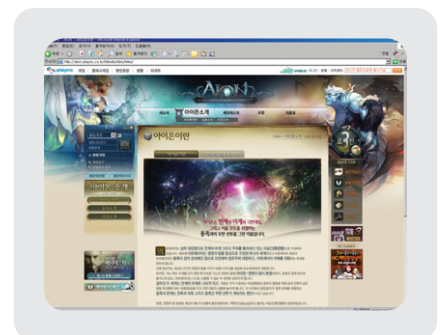
뉴로테크(대표 박병주 www.netbrain.co.kr)는 중국의 뉴씨뱃바이오파마와 6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뉴로테크의 바이오의약품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치료용 항체생산 핵심 기술을 이용해 뉴씨뱃바이오파마에 항암 항체 후보의약품의 생산공정 개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화 57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윤재승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양사가 올 초에 체결한 단백질 의약품 위탁생산(CMO)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의 이행절차상의 일환이며, 당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술력과 뉴씨뱃바이오파마의 위탁생산에 대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윤 부사장은 “앞으로 뉴씨뱃바이오파마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항체의약품 개발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이온, 유럽 최대 게임쇼 GC 및 북미 최대 게임축제 PAX에서 일반에 공개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www.ncsoft.com)의 차기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이 글로벌 론칭에 들어갔다.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유럽 최대의 게임전시회 GC(게임컨벤션, Games Convention 2008)에서 엔씨소프트는 아이온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게임축제 PAX(팍스, PENNY ARCADE EXPO 2008)에서도 아이온이 일반에 공개됐다. 일반인에 앞서 북미 지역 미디어를 대상으로 프리뷰(preview)를 가진 아이온에 대한 현지 게임전문 매체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위메이드-대전문화산업진흥원, 게임문화 관련 MOU체결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서수길, 박관호 www.wemade.com)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게임문화콘텐츠 공동사업추진업무 협약식 을 갖고 지역게임 문화산업 발전에 나서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앞으로 대전광역시의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프로그래밍단 '위메이드폭스'의 대전지역연고 추진을 위해 노력하게 되며 대전광역시역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국책사업등을 위메이드와 공동 추진하게 되며, e스포츠 전용경기장 및 방송시설 등의 각종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위메이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자사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종 인프라 지원등을 통해 e스포츠 산업의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네이버, 지자체와 협력 통해 마을도서관 사업 강화

NHN 검색 포털 네이버(대표 최휘영 www.naver.com)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마을도서관개설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강원도, 전라남도, 이어 경상북도, '마을도서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마을도서관 개설 운영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언론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2008년 11월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총 79개 학교에 마을도서관을 개설하고, 20만 권 이상의 도서를 지원하는 등 전국 곳곳에 책을 통한 정보 나눔의 공간을 늘려가고 있다.

메모렛월드 본사 구로동 디지털 1단지로 이전

USB 메모리 전문기업 메모렛월드(대표 최백수 www.memorette.co.kr)는 지난 8월 15일 구로디지털 1단지로 이전하였다. 기존 문래동 공장과 원호로 본사로 나뉘어 있던 메모렛은 구로동 191-7 에이스 테크노타워 8차 805호로 이전하여 개발, 생산, 판매, 고객지원의 원스톱 일관 체제로 효율성을 높였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국내시장의 컴퓨터 주변기기 분야는 대만산 중국산 등 외산브랜드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그러나 USB 메모리의 경우 국내산 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 왔다. 국내 토종기업 메모렛월드가 본사이전과 더불어 제2의 힘찬 도약을 꿈꾸며 USB 메모리 전문기업의 위치를 확보하고 세계로 뻗어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다.

